

DOI: 10.21850/kge.2019.35..233

『문법 교육』 제35호(2019.4.), 한국문법교육학회

우리말 감탄사의 범주화*¹⁾

이정택

차례

1. 들어가기
2. 학교문법의 감탄사
3. 선행연구를 통해 본 감탄사 범주
4. 목록의 점검과 범주화
5. 맺음말

1. 들어가기

우리말 감탄사에 대한 연구는 유길준(1909)과 주시경(1910)에까지 소급한다. 유길준(1909)은 오늘날의 ‘감정 감탄사’ 등을 ‘감동사(感動詞)’로 범주화하고 그 독립적 성격 등을 비교적 자세히 논의하였다. 주시경(1910) 역시 감정 감탄사들을 ‘놀’이라는 명칭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 이후 최현배(1937)에서 ‘의지 감탄사’가 추가되고 정인승(1956)에서는 ‘입버릇’과 ‘더듬’을 나타내는 말들이 다시 더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정인승(1956)의 내용을 최초의 국정 문법교과서인 ‘고등학교 문법(1985)’에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 그리고 ‘입버릇과 더듬거림’이라는 세 종류의 감탄사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세 부류가 어떤 공통 특징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범주 명칭의 핵심인 ‘감탄’은 오직 ‘감정 감탄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자 한다면 이들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공통 특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특징을 찾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감탄사의 범주화는 실패한 것이 되고 만다.

이 글에서는 현행 감탄사 범주에 포함되는 위의 세 부류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확인하고, 이들을 묶어 감탄사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려 한다.

2. 학교문법의 감탄사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5년 간행된 최초의 국정 중등 문법교과서인 ‘고등학교 문법’은 정인승(1956)의 체계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감정감탄사’와 ‘의지감탄사’ 그리고 ‘입버릇과 더듬거림’을 모두 감탄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11-(가), (나)의 ‘어머나, 흥’과 같은 말은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을 표시한다. 이러한 말을 감탄사(感歎詞)라 한다. 감탄사에는 이러한 감정 표시의 말 이외에 의지(意志)와 관계되는 것도 있다. 11-(다), (라)의 ‘예, 여보게’는 대답하거나 부르는 말로서, 이런 말들은 발화 현장에서 말 듣는 이를 의식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11-(나)의 ‘뭐’는 입버릇으로 내는 말이며, 11-(마)의 ‘어’는 말을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날 때에 나오는 말이다.”(고등학교 문법, 1985: 42)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이들 세 부류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를 찾기는 무척 어렵다. 위에서 인용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등학교 문법’의 경우 세 부류의 공통 특징 없이 감정 감탄사의 속성을 통해 감탄사를 규정한 후 나머지를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들의 이질적인 성격을 방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이후 간행된 학교 문법서들은 물론이고 아래 인용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남기심·고영근(1985) 등 교육계와 학계에 큰 영향을 준 문법서들에 의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 교육계와 학계의 통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탄사는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이다.(중략) 1(가), (나)의 ‘아, 흥’은 화자의 슬픔이나 비웃음과 같은 감정을 표시한 것이다. 1(가)의 경우, ‘아! 어머님께서...’ 대신 ‘슬퍼라, 어머님께서 ...’와 같이 쓸 수도 있으나 이 때는 특별한 단어 ‘슬프다’의 감탄형이지 감탄사는 아니다. 1(다)의 ‘예’는 화자가 발화현장에서 상대방의 부름에 대해 자기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감탄사에는 1(나)의 ‘뭉’과 같이 입버릇으로 내는 말과 1(라)의 ‘어’와 같이 더듬거리는 말도 포함된다.”(남기심·고영근, 1985: 174-175)

흔히 국어문법교과의 목표 중 하나로 사고력 신장을 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범주화와 문법체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중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어도 학교 문법서만이라도 온전한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선행연구를 통해 본 감탄사 범주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감탄사에 대한 논의는 유길준(1909)까지 소급되는데, 이 책에서는 ‘어, 하, 음, 앓차, 잇기’ 등을 감동사라 명명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感動詞라 呼는 者는 人의 觸發呼는 感動을 表示呼는 語이라”(유길준, 1909: 88)

그런데 유길준(1909)은 감동을 나타내는 말뿐 아니라 ‘음’과 같이 ‘더듬거림’의 속성을 갖는 단어도 제시하고 있어 오늘날의 감정 감탄사와 더듬거림 등을 포괄하는 범주로 파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책에서는 독립적 성격 등 감탄사의 속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이를 간투사(間投詞)로 부를 수 있음도 밝힌 바 있다.

주시경(1910)의 서술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는 ‘아, 하, 참’과 같은 단어들을 예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뜻매김한 바 있다.

“놀라거나 늦기어 나는 소리를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주시경, 1910: 28)¹⁾

즉 놀라거나 어떤 느낌에 의해 표출되는 단어들을 감탄사로 범주화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유길준(1909)의 예시 중 ‘더듬거림’을 나타내는 ‘음’ 등이 빠진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명칭과 뜻매김 그리고 용례가 서로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주시경(1910)의 ‘놀’은 현재의 감정 감탄사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1) 띄어쓰기 필자가 일부 수정했음.

최현배(1937)은 주시경(1910)의 ‘놀’에 ‘의지 감탄사’를 포함시켜 ‘느낌씨 [感動詞]’로 통합하고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느낌씨(感動詞)는 마디(節)나 월(文)의 앞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씨를 이름이니: 그 꾸미는 내용(뜻)은 여러 가지의 느낌하고 부름(呼)과 대답과의 첫머리하고를 들어내는 것이니라.”(최현배, 1937: 605)

위의 내용을 통해 최현배(1937)이 감탄사를 일종의 수식 요소로 파악하면서 그 의미를 ‘느낌’ 및 ‘부름과 대답’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최현배(1937)은 이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감탄사의 용법과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즉 이들 단어의 위치, 여타 문장 성분과 유리된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그 분류 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탄사의 거의 모든 특징들이 이 책에서 서술된다. 다만 최현배(1937)에서는 감탄사의 독립성과 수식적인 성격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부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현배(1937)의 감탄사 체계에 유길준(1909)에서 예로 제시되었던 ‘더듬’과 ‘입버릇’을 추가한 것이 정인승(1956)으로 이 책에서는 감탄사를 다음과 같이 뜻매김하고 있다.

“다른 낱말과 직접 붙지 않고 따로 떨어진 대로, 월의 앞이나 중간이나 뒤나에 덧들어가든지, 혹은 월은 없이 월의 대신으로 되든지 하여, 느낌이나 간단한 의사를 나타내는 낱말들”(정인승, 1956: 158-159)

위의 내용은 감탄사의 독립성, 그 위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부분 최현배(1937)의 감탄사 서술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감탄사의 위치에 대해 최현배(1937)이 감탄사는 원칙적

으로 문장 첫머리, 특별한 경우에 한해 문장 끝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본 반면 위에서는 그 위치가 문장 앞과 뒤 그리고 중간 모두인 것으로 서술한 점이 다르다. 말하는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입버릇’과 ‘더듬’을 감탄사에 포함시킨 결과로 여겨진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인승(1956)의 감탄사 기술은 최초의 국정 문법교과서인 ‘고등학교 문법’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남기삼·고영근(1985) 등에 의해서도 채택되면서 학계의 통설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문법학자인 고신숙(1987)은 감탄사의 세 종류 중 ‘입버릇’과 ‘더듬거림’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동사’라 하여 범주화하고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눈 바 있다.

- ① 말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감동사
- ② 말하는 사람의 의지 또는 요구 등을 나타내는 감동사
- ③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내는 감동사

위 고신숙(1987)의 감탄사 분류는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의 2분법을 변형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감탄사를 의지 감탄사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킨 것으로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화자의 의지를 화자의 태도라 할 수는 있으나 화자의 태도가 언제나 화자의 의지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들을 의지 감탄사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오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신숙(1987)은 감탄사를 하위분류했을 뿐 아니라 그 기본 특성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① 감동사는 개념을 통한 명명을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을 직감적으로 나타낸다는데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 ② 형태론적 측면에서 볼 때 감동사는 문법적 형태체계를

갖추고있지 않다.

- ③ 감동사는 다른 품사들과 달리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없다.

위의 세 가지 특성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최현배(1937) 이후 지금까지 감탄사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기술되어 온 바 있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위의 세 가지 특성 중 첫 번째 서술은 감탄사의 원시적 특성을 지적인 것으로 그 내용을 음미해 볼 만하다.

- (1) ㄱ. 아! 기쁘구나!(기쁨)
 ㄴ. 아! 슬프구나!(슬픔)
 ㄷ. 아! 도대체 이게 뭐야?(놀람)

위 예문 (1)은 기쁨, 슬픔, 놀람 등 서로 다른 다양한 감정이 동일한 형태의 감탄사에 의해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해당 감탄사의 출발이 특정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감정의 원시적인 표출이었기 때문인데, 위의 첫 번째 내용은 감탄사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일부 감탄사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아래 예문 (2)와 (3)을 통해 확인되듯이 의지 감탄사는 물론 상당수의 감정 감탄사는 고정된 의미를 상징할 수 있어 그 개념적 의미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 ㄱ. 자, 여기들 보세요.(주의 환기)
 ㄴ. 쫌! 조용히들 하세요.(금지 명령)
 (3) ㄱ. 아차! 도시락을 빼 놓고 나왔구나.(망각의 깨우침)
 ㄴ. 메롱! 약 오르지?(감정 자극)

감탄사의 축자적인 의미와 실제 이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들 사이

의 괴리를 인식하면서 감탄사를 ‘간투사’로 고쳐 부르자고 제안한 신지연(1989)의 아래와 같은 기술은 감탄사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갖는 공통특징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감탄사’에는 ‘아, 아이구, 어머니’ 등 진정한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것들과 함께, 감탄의 의미를 가지 기보다는 단지 문장과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뜻에서 ‘감탄사’로 분류되어온 것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네, 아니오’ 등의 대답하는 소리, ‘여보, 이봐, 애, 야’ 등의 부르는 소리, ‘구구, 워리’ 등의 동물을 부르는 소리, ‘자, 췌, 아서라’ 등의 명령적인 뜻을 담은 소리 외에, ‘음, 저어, 저기요, 있잖아요’ 등, 말의 첫머리나 도중에 머뭇거리는 소리들이 있다. 그래서 전통 문법서에서는 이들 어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강한 정서를 외침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과, 둘째, 문장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다.”(신지연, 1989: 165)

위의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감탄사의 공통 특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밑줄 친 부분이다.²⁾ 여기서 우리는 감탄사를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어휘 범주 즉 문장 안의 여타 요소와 문법적 관계없이 사용되는 범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감탄사가 언제나 독립언이 된다는 여러 문법서들의 인식과 공통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을 좀 더 깊이 관찰하면 그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에서 발견되는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이 ‘입버릇’과 ‘머뭇거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밑줄은 필자가 넣었음.

(4) ㄱ. 아! 조국 광복이 이루어졌구나!

ㄴ. 예.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위 예문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의 경우 이들 감탄사만으로도 화자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감탄사 자체가 문말 억양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문말 억양은 하나의 문장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입버릇과 더듬거림의 속성은 이와 많이 다르다. 입버릇이나 더듬거림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요소에 감정이나 의지 등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말 억양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5) ㄱ. 내가 말이지 순희네 집에 들어갔는데 말이지 큰 개가 짓고 있었어.

ㄴ. 순희가 으음 학교에 가서 으음 친구를 만났어.

위 예문 (5)의 밑줄 친 부분들은 입버릇과 더듬거림의 용례들이다. 이들 예문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들이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 감탄사나 의지 감탄사에서처럼 문말 억양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가 문장에 준하는 독립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데 반해 입버릇과 더듬거림은 개념적 의미 없이 문장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³⁾

3) 개념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상황에 따른 이들의 화용론적 기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화용론적 기능에 대해서는 신지연(1989), 김선희(1994), 오승신(199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목록의 점검과 재범주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감탄사의 특성을 살핀 앞 장에서 우리는 이른바 ‘입버릇’과 ‘더듬거림’이 나머지 감탄사 목록과 큰 차이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하나의 어휘 범주를 이루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감탄사 목록들이 하나의 어휘 범주가 되기 어렵다면 범주화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감탄사의 기존 목록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범주화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4.1. 감탄사의 공통 특징과 목록의 점검

앞 장에서 살핀 것처럼 유길준(1909) 이후 이루어진 기존의 성과들이 각각 주장하는 감탄사의 특징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개별 연구에서 주장된 특징 중 일부는 감탄사의 공통 특징이 되기 어려웠고 감탄사의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공통 특징은 아래와 같았다.

- ①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는다.
- ② 형태변화가 없는 불변화사이다.

여기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위의 두 가지 준거를 가지고 감탄사 목록을 일단 재검토하려 한다. 우선 감탄사만이 갖는 특성인 ‘독립성’을 통해 기존의 목록을 검토할 때 가장 쉽게 파악되는 이질적인 요소는 입버릇과 더듬거림이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도 밝혔듯이 입버릇과 더듬거림에서는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역시 문장의 다른 요소와는 유리된 성격을 지니기에 나름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버

룻과 더듬거림은 문장 안이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화자 내적으로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준비하고 외적으로는 말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이는 역할을 한다. 한 마디로 이들의 역할은 뒤에 이어질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문장 안의 여타 요소와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므로 그 속성이 하나의 문장에 준하는 감정 감탄사나 의지 감탄사와는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가 화자의 감정이나 의지라는 의미 내용을 품고 있음에 반해 입버릇과 더듬거림 자체에 어떤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들을 별개 어휘 범주로 독립시키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⁴⁾

감탄사가 갖는 독립성을 문말 역양을 유지한 채 단어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아래 예문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등의 특정한 용법도 모두 감탄사로 여겨질 수 있다.

- (6) ㄱ. 영희야! 여기 와서 고구마 먹어라.(명사)
 ㄴ. 빨리!(부사)
 ㄷ. 가져와.(동사)
 ㄹ. 놀라워!(형용사)

그러나 그 누구도 위와 같은 용례를 감탄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탄사가 갖는 독립성은 그 일부 쓰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탄사는 그 본질이 여타 요소와 고립된 상태로 언제나 독립적인 독립언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언 외의 문장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해당 단어들은 감탄사가 될 수 없다.

4) ‘입버릇’과 ‘더듬거림’을 나타내는 낱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어휘 범주를 이루는 낱말 수가 범주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다. 관형사의 경우에도 그 수가 상당히 적지만 이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아래 (7)에 사용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감탄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은 위 (6)에 사용된 용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⁵⁾ 왜냐하면 (7)의 밑줄 친 단어들을 이들과 동일한 형태인 (8)의 밑줄 친 형태들과 다른 단어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8)의 형태들은 감탄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한 용법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 (7) ㄱ. 만세! 만세!
 ㄴ. 정말, 아름답구나.
 ㄷ.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ㄹ. 그래, 영화는 참들었다.
- (8) ㄱ. 만세를 부르자.(명사)
 ㄴ. 이건 정말이야.(명사)
 ㄷ. 그거야 그렇지.(형용사)
 ㄹ. 모두 다 그래.(형용사)

감탄사가 어형의 변화 즉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변 화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면 해당 단어들은 감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7)에서 확인한 것처럼 형태 변화가 활발한 체언이나 용언에 기원을 둔 경우 이들이 감탄사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과 다른 새로운 단어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필자의 판단으로는 위 (7)의 밑줄 친 사례들이 (8)의 밑줄 친 단어들과 별개의 단어가 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현배(1937) 등 기존 연구에서 감탄사로 분류된 단어들 중에는 형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더 있다. 아래 (9)의 밑줄 친 ‘아니’와 ‘글썄’ 그리고 (10)의 ‘아무렵’, ‘암’ 또한 예문(9)’와 (10)’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형태 변화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최현배(1937)에서 이들을 ‘느낌씨’ 즉 감탄사로 보고 있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이들을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다.

- (9) ㄱ. 아니. 나는 오늘 직장에 안가요.
 ㄴ. 글쎄, 순희가 결근했을까요?
- (9) ' ㄱ. 아니요. 나는 오늘 직장에 안가요.
 ㄴ. 글쎄요. 순희가 결근했을까요?
- (10) ㄱ. 아무렴, 순희야 합격하겠지.
 ㄴ. 얏, 순희야 합격하겠지.
- (10) ' ㄱ. 아무렴요. 순희야 당연히 합격하겠지요.
 ㄴ. 얏요. 순희야 당연히 합격하겠지요.

형태 변화가 없었던 (9)와 (10)에서와 달리 (9)'와 (10)'에서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요'가 이어짐으로써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런 현상은 아래 (11)과 (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감탄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11) ㄱ. 어머! 김 선생님 아니세요.
 ㄴ. 췌! 모두들 조용히 해요.
- (11) ' ㄱ. *어머요! 김 선생님 아니세요.
 ㄴ. *췌요! 모두들 조용히 해요.

이렇게 형태 변화가 가능한 단어들을 대표적인 불변화사인 감탄사로 처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 이들을 굳이 감탄사로 처리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도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들은 감탄사가 아닌 부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9ㄱ)의 '아니'는 부정의 부사로서 다른 낱말들이 모두 생략된 상태에서 발화되었기에 겉으로는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나 실체는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쓰임은 아래 (12)에서처럼 부사 단독으로 한 문장을 이루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12) A: 명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B: 아마도.

(9ㄴ)과 (10ㄱ), (10ㄴ)의 ‘글썸’, ‘아무렵(암)’ 등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정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인 불확신 혹은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양태부사로 불리는 문장 수식 부사의 의미 기능이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의미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감탄사로 본다면 감탄사는 더 이상 독립언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아래 (13), (14)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이들은 문장 안에서 자리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데 감탄사가 문장 안으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최현배, 1937: 606-607) 그리고 예문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모습은 양태부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13) ㄱ. 글썸 어머니가 벌써 진지를 잡수셨을까?

ㄴ. 어머니가 글썸 벌써 진지를 잡수셨을까?

ㄷ. 어머니가 벌써 글썸 진지를 잡수셨을까?

ㄹ. 어머니가 벌써 진지를 글썸 잡수셨을까?

(14) ㄱ. 아무렵(암) 우리 반에서는 네가 제일이지.

ㄴ. 우리 반에서 아무렵(암) 네가 제일이지.

ㄷ. 우리 반에서 네가 아무렵(암) 제일이지.

(15) ㄱ. 아마도 명석이가 우리 반에서 일등일 거야.

ㄴ. 명석이가 아마도 우리 반에서 일등일 거야.

ㄷ. 명석이가 우리 반에서 아마도 일등일 거야.

그런데 아래 (16)에서와 같이 감탄사가 문장 안으로 이동한 것처

6) 최현배(1937)이 감탄사를 일종의 수식요소로 파악한 주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단어들의 존재였을 것이다.

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예들 때문에 의지감탄사의 경우 문장 안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⁷⁾

- (16) ㄱ. 예 제가 순이에게 전해주겠습니다.
 ㄴ. ??제가 예 순이에게 전해주겠습니다.
 ㄷ. ??제가 순이에게 예 전해주겠습니다.

의지감탄사인 ‘예’가 문두에 위치한 위 (16ㄱ)이 올바른 문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요소가 문장 안으로 이동한 (16ㄴ)과 (16ㄷ)은 그 적격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설혹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이 실제 발화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쓰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문두에서 발화되어야 하는데 미처 발화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중간에 끼워 넣은 용례로 보인다. 또한 의지감탄사 ‘예’에는 문말억양이 놓일 수 있고 이는 문장이 여기서 일단 종결되었음을 의미하기에 위와 같은 현상을 감탄사의 이동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와 ‘글쎄’의 경우 아래 예문 (17)에서처럼 부정이나 불확실회의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17) ㄱ. 아니, 그러면 은행이 망해도 돈을 찾을 수 있나요?
 ㄴ. 글쎄,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안돼요.
 ㄷ. 아, 글쎄, 교환을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네요.

(17ㄱ)에 사용된 ‘아니’의 의미는 ‘의외(意外)’라고 할 수 있고 (17ㄴ)과 (17ㄷ)의 ‘글쎄’는 각각 ‘구정보의 재확인’과 ‘신정보의 강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ㄴ)의 경우, 청자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에 ‘구정보의 재확인’으로 파악할 수 있고 (17ㄷ) ‘글쎄’의 의미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강하게 전달할

7) 감정감탄사의 경우 그 의미 특성 상 문장 안으로의 이동은 의지감탄사보다 더 제약된다. 아울러 감정감탄사 역시 문말억양을 동반함은 물론이다.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신정보의 강조’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기능들 역시 모두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임에 분명하므로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러한 쓰임들 역시 문장수식 부사의 일종인 양태부사의 용례로 보아야 한다. 아래 (18)~(20)은 이들의 이동이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문장들로 이들이 문장수식 부사임을 재확인해 준다.

- (18) ㄱ. 아니, 그러면 은행이 망해도 돈을 찾을 수 있나요?
 ㄴ. 그러면 아니 은행이 망해도 돈을 찾을 수 있나요?
 ㄷ. 그러면 은행이 망해도 아니 돈을 찾을 수 있나요?
 ㄹ. 그러면 은행이 망해도 돈을 아니 찾을 수 있나요?
- (19) ㄱ. 글쎄,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ㄴ. 그렇게는 글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 (20) ㄱ. 아 글쎄 교환을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네요.
 ㄴ. 아 교환을 글쎄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네요.
 ㄷ. 아 교환을 해 달라는데 글쎄 안 해 주네요.

4.2. 감탄사의 재분류와 범주명 설정

앞에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감탄사의 공통 특징을 바탕으로 감탄사로 여겨져 온 단어들을 재검토했다.

- ①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는다.
- ② 형태변화가 없는 불변화사이다.

아울러 앞 절에서 이루어진 용례 검토 과정에서 감탄사는 문장 안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감탄사 범주에 포함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①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는다.
- ② 형태변화가 없는 불변화사이다.
- ③ 문두에 위치하며 문장 내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위 세 가지 준거를 적용할 때 우선 ‘입버릇’과 ‘더듬거림’은 ①과 ③ 두 가지 준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감탄사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감탄사로 분류되어온 일부 어휘 역시 ①과 ② 그리고 ③의 특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감탄사가 아닌 체언과 용언 및 부사 등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감탄사에서 배제한 단어 유형

새로운 품사 간투사로 처리		음, 어, 말이지 등 (입버릇과 더듬거림)
기존 품사로 처리	체언	만세, 정말
	용언	그렇지, 그래
	부정의 부사	아니
	양태부사	글쎄, 아무럼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이른바 ‘입버릇’과 ‘더듬거림’의 범주 확정이다. 이들이 감탄사가 아니라면 기존의 다른 품사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품사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감탄사 외에 이들이 들어갈 만한 품사가 따로 없음은 분명하다. 이들을 단어로 인정한다면 결국 새로운 품사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기존에 사용된 어휘 범주명 중 ‘간투사(間投詞)’가 이들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왜냐하면 입버릇과 더듬거림은 말을 하는 중간 중간에 집어넣는 요소들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입버릇과 더듬거림을 위한 새로운 품사 ‘간투사’를 설정하기로 한다.

감탄사에서 입버릇과 더듬거림을 뺀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

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인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감탄사’라는 범주명은 감정 감탄사에는 잘 어울리나 의지 감탄사와는 거리가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를 포괄할 만한 용어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들의 공통 특성인 ‘양태성’, ‘독립성’을 드러내는 용어법인 ‘양태사’ 혹은 ‘독립양태사’와 같은 품사명을 제안해 본다. ‘독립 양태사’를 사용하여 그 하위 체계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덜 분화되어 다양한 의미로 쓰임을 말하고 특정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그 의미가 특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표 2> 독립양태사의 체계

독립감정양태사	다양한 의미로 쓰임	응, 어, 아, 아이고, 어머니, 히, 하 등
	특정한 의미로 쓰임	참, 흥, 아뽀싸, 아차, 피 등
독립의지양태사 ⁸⁾	다양한 의미로 쓰임	응
	특정한 의미로 쓰임	예, 오냐, 췌, 자, 메롱, 여보, 여보시오 등

4. 맺음말

감탄사는 지금까지 뚜렷한 조명을 받지 못한 어휘 범주이다. 어쩌면 감탄사는 품사 분류 과정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한 단어들을 한 데 모아 놓았던 나머지일 수도 있다. 실제로 감탄사에는

8) 의지감탄사 목록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언제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사용되는 ‘예’는 의지와 무관하다. 따라서 ‘의지’라는 용어법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후고로 미룬다.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기존의 감탄사 범주 설정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이들의 재검토와 재분류를 시도했으며 그 기준은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아래와 같은 감탄사의 세 가지 특성이었다.

- ①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는다.
- ② 형태변화가 없는 불변화사이다.
- ③ 문두에 위치하며 문장 내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들 기준을 적용할 때 기존 감탄사 범주에 포함되었던 ‘입버릇’과 ‘더듬거림’은 감탄사 범주에서 독립시켜 ‘간투사’로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가 갖는 문장에 준하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기존의 감탄사 범주에는 여타 품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목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감탄사로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기에 원래 품사인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한 용법으로 처리했다. ‘글쎄’, ‘아무림(암)’ 등 감탄사로 처리되던 단어들도 그 의미나 용법이 문장수식 부사의 일종인 양태부사와 동일하기에 양태부사로 처리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기존 범주명인 감탄사는 그 용어법이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 모두를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감탄사 대신 ‘양태사’ 혹은 ‘독립 양태사’와 같은 범주명 사용을 제안했다.

본고에서는 감탄사의 공통 특징을 밝히고 기존 감탄사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질적인 단어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투사’라는 새로운 어휘 범주를 설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들 이질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감탄사와 여기서 독립한 간투사의 목록을 완성하고 그 체계를 가다듬는 일이다. 이들 작업은 후고로 미룬다.

핵심어: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과 더듬거림, 독립성, 불변화성, 이동불가능성, 양태성

참고문헌

- 고신숙(1987),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남기삼·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선희(1994), 감탄사와 담화표지(discourse marker)의 관련성, 「우리말글연구」 1, 우리말학회, 265-283쪽.
- 문교부(1985), 「고등학교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신지연(1989), 간투사의 화용론적 특성, 「주시경학회」 3, 주시경학회, 165-169쪽.
- 오승신(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53-86쪽.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유길준(1909), 「대한문진」, 역대한국문법대계 1-06.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9), 「한국어 표준문법」, 집문당.
-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최현배(1937-1984),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전자우편: jtlee@swu.ac.kr

투고일: 2019. 3. 9.

심사일: 2019. 3. 28.

게재 결정일: 2019. 4. 8.

Abstract

Re-categorization of Korean Interjections

Lee Jungtag
(Seoul Women's University)

We cannot find enough study results about Korean interjections. The current list of them seems like the remainders of word categorization. We can easily find many heterogeneous words in the list.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categorizing system. So this paper tried to re-examine the list and re-categorize them. The criteria of re-examination and re-categorization are as follows.

- ① Interjections should have the same independence as sentences.
- ② Interjections should be indeclinable.
- ③ Interjections should not move into the sentences.

When we apply these criteria to the current list of interjections, we can get following results.

- ① Words functioning as fillers like 'um', 'e', 'malici'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others, because they lack independence.
- ② Some words considered to be derived from other word categories like 'manse', 'kray' cannot be interjections, due

to lack of evidence. They should be regarded as members of the original categories like noun or adjective.

- ③ 'ani', 'kulsse', 'amuryem(am)' cannot be interjections. 'ani' should be regarded as an adverb of negation. 'kulsse' and 'amuryem(am)' should be regarded as adverbs of manner. Their meaning and syntactic features are the same as adverbs of negation and manner respectively.
- ④ The proper name of word category containing items that function as fillers should be 'kanthusa' which means 'filler' in Korean.
- ⑤ The proper name of word category for words that show emotions or will of the speakers can be named as 'yangthaysa' meaning 'modal word' or 'tokrip-yangthaysa' meaning 'independent modal word' in accordance with their meanings and syntactic features.

Key Words: emotional interjection, interjection of will, filler, independence, indeclineableness, immovability, modality